

현장 심사 중 작업자가
최신 개정본이 아닌 구버전 작업표준서를 보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만으로 부적합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까?

심사원은 어떤 판단 흐름으로 적합·부적합을 결정합니까?

좋은 심사원은 "구버전 문서를 봤다 → 즉시 부적합"으로 가지 않습니다.

ODI 방식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Step 1. 실제 상황은 무엇인가?

현재 확보된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작업자가 최신 개정본이 아닌 구버전 작업표준서를 보고 작업하고 있다.

여기서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 구버전과 최신본의 차이는 무엇인가?
- 작업자는 실제로 무엇을 기준으로 작업하는가?
- 최신본은 현장에 배포되어 있는가?
- 구버전은 왜 남아 있는가?
- 변경사항이 품질에 영향을 주는가?
- 문서관리 프로세스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즉, 현재는 **현상(Observation)** 만 확인된 상태입니다.

심사 판단은 아직 아닙니다.

ODI 원칙상 객관적 증거 없이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Step 2. 심사원이 먼저 보는 리스크는?

심사원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

↓

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

어떤 통제가 실패했는가?

↓

증거는 충분한가?

↓

부적합 여부 판단

이 사고 흐름이 심사원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번 사례라면:

예상 리스크

- 잘못된 작업 수행
- 제품 규격 불일치
- 검사 기준 오류
- 고객 요구사항 미반영
- 변경사항 미적용

하지만 아직은 "예상 리스크"입니다.

실제 발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Step 3. 심사원이 추가로 확인할 질문

질문 1

"최신본과 구버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만약

- 이탈자 수정
- 양식번호 변경
- 문서서식 변경

이라면?

실질적 영향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 작업조건 변경
- 검사기준 변경
- 중요 공정조건 변경

이라면?

리스크가 매우 커집니다.

질문 2

"작업자는 실제 무엇을 기준으로 작업하고 있습니까?"

흥미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작업자가

"저는 최신 교육을 받았고 변경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구버전 문서를 보고 있었지만

실제 작업은 최신 기준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3

"최신본은 현장에 존재합니까?"

만약

최신본은 존재하고

구버전도 함께 남아 있다면

문서통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장 전체가 구버전만 사용 중이라면

문서관리 시스템 자체의 실패일 수 있습니다.

Step 4. 어떤 증거가 나오면 부적합이 되는가?

사례 A

현장에 구버전 문서 존재

-

작업자가 그것으로 작업 수행

-

변경사항을 모름

-
- 최신 요구사항 미반영
- 매우 강한 객관적 증거
- 부적합 가능성 높음
-

사례 B

현장에 구버전 존재

-
- 문서 회수 실패 확인
-
- 다른 작업장에서도 동일 발견
-
- 문서배포 프로세스 실패 확인
- 시스템적 문제
- 부적합 가능성 높음
-

사례 C

현장에 구버전 존재

-
- 작업자는 최신 변경사항 숙지
-
- 실제 작업도 최신 기준 적용
-
- 최신본도 사용 가능
- 즉시 부적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다만 문서통제 효과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

심사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핵심

많은 초보 심사원은

"구버전 발견 = 7.5.3 부적합"

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경험 많은 심사원은 먼저 묻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문서 존재 문제인가?"

아니면

"실제로 통제가 실패한 것인가?"

ISO 심사는 문서 존재 여부보다 **운영 통제의 효과성**을 평가합니다. 문서 문제인지, 운영 통제 실패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사고가 중요합니다.

ODI 결론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구버전 작업표준서를 보고 있었다"

라는 사실만 확인됩니다.

이 사실만으로 즉시 부적합을 선언하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심사원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상황 → 리스크 → 프로세스 → 통제 → 객관적 증거 → 효과성 → 부적합 여부

따라서 다음 증거를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1. 최신본과 구버전의 차이
2. 실제 작업 수행 기준
3. 문서 배포·회수 통제 상태
4. 변경사항 인식 여부
5. 품질 또는 고객 요구사항 영향 여부

그 후에야

- 단순 관찰사항(Observation)
- 개선기회(OFI)
- 부적합(Nonconformity)

중 어느 수준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내부심사입니까, 인증심사입니까?

그리고

구버전과 최신본 사이에 실제 작업방법 변경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단순 문서 개정입니까?

이 두 정보가 있으면 심사원의 판단 수준(관찰사항/경미부적합/중대부적합)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